

남원, 문화예술 중심으로 자리잡다

문화도시 프로젝트 '꾼' 6개 문화예술단체 선발 '판 페스티벌'에서 공개

남원 문화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꾼'은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남원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이다.

장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년 이어 올해에도 선발된 단체들과 남원의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꾼' 사업을 통해 뭉쳤다.

총 6개의 문화예술단체가 2016년 '꾼' 사업을 위해 선발되었으며, 남원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물론 그 중심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상박물관 '남원' 시즌3 <시민도슨트>는 시민이 직접 남원의 생활과 문화를 주제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여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남원에서 접하기 힘든 영상 전문분야 교육을 받기 위한 시민들이 꾸준



남원 문화도시 프로젝트 '꾼' 타악 퍼포먼스 소리율림.

히 강의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주여성 및 남원시민에게 압화 공예를 체험하고 직접 감상과정을 거치는 압화 공예 체험강사양성 교육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실습활동과 다양한 결과물로 수강생들의 열의나 출석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이 교육으로 가정주부가 아닌 강사의 꿈을 꾸는 수강생의 자신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교육은 기획에 관련한 전문 지식인이 부족한 남원에 기획자 양성의 기반을 다져준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남원의 발전을 위해 수업을 수강했으며, 다소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과 열의로 수업이 진행중이다. 타악의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배워보는

타악 퍼포먼스 교육은 실습위주 교육으로 인기가 많다. 기초 과정을 거쳐 심화과정에 들어서는 수강생들은 실제로 공연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게릴라 뮤지컬 콘서트 <남원에 반하다>는 뮤지컬을 배우는 교육으로 무대 동선 활용, 대사 표현 등 뮤지컬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교육한다.

남원이 바탕이 되는 연극을 기획 단계부터 무대, 연출,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 교육을 하는 2016 '흥'이 '움'터다 수업은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결과는 11월 예가람길에서 열리는 '판 페스티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간 갖고 닦은 실력으로 공연과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질 전망이다.

남원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꾼'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표 최대 '2베이징국제도서전' 24일 개막 출협, 한국관 운영 현지 저작권 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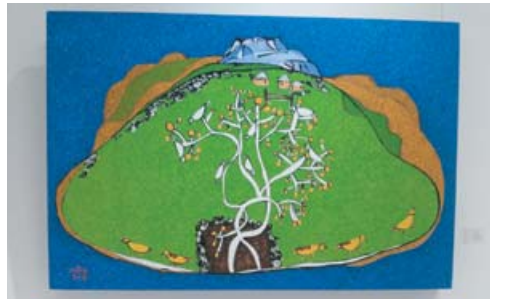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24~28일 중국국제전람중심관에서 열리는 '2016 베이징국제도서전'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도서진출구(집단)총공사가 주최하는 베이징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 도서전으로 지난해 82개국 2302개사가 참가했다. 지난 1986년 시작한 이 도서전은 초창기 격년(1986~2002) 개최 등을 포함해 올해로 23회째다.

올해 한국관에는 교원, 다락원, 블루라빗, 웅진씽크빅, 창비, 현재교육 등을 비롯한 국내 출판사 및 저작권 에이전시 29곳이 부스를 차렸다.

출협은 한국관 운영을 통해 참가사들의 현지 저작권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출판부, 시공주니어, 위즈덤하우스, 현안사 등 14곳의 위탁도서 53종도 전시한다.

/김민근 기자



'한문화 갤러리' 개관

《한문화 갤러리》에는 전주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한복·한식·한지·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한'에 대한 다중적·대중적인 의미가 응축돼 있습니다. 미술 관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며 시를 읽듯이 일상에서 즐겨 하면 됩니다.

박배근 한문화갤러리 회장은 "한문화갤러리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작가에게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무대로, 지역에는 다양한 작품과 문화로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함께 하겠다."며 갤러리 개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림과 사람이 편안하게 만나는 공간, 예술작품의 대중화를 위한 한문화갤러리가 개관한다.

이는 투어컴그룹의 사회공헌 문화사업 일환으로, 갤러리에는 110여 평의 규모에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미술과 어울리는 시 낭송 무대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시설도 자리잡는다.

오는 9월 5일 오후 6시 오픈식과 맞물려 한문화갤러리는 한 달간 개관전을 연다.

이번 개관전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김수호, 강신동, 강용면, 강정미, 고리돌, 김경숙, 김선에, 김성욱, 김수자, 김영란, 김완순, 김종연, 류창희, 문재성, 박지예, 박천복, 박태영, 선기현, 송수미, 송지호, 신영식, 엄혁용, 유경희, 유병희, 유혜인, 이경옥, 이광진, 이동근, 이병로, 이석중, 이철량, 임대준, 정강희, 정재석, 조현, 차유림, 최진숙, 최해진 38인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들 작가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조각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 76점을 전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문화갤러리는 미술품 소장의 대중화를 위해 작품구매방식에 후불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대중들이 쉽게 작품을 구입할 수 없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목돈 없이도 매 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작가들에게는 작품비를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작품창작 활동의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마련된 시스템이다.

김이재 관장은 "작가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미술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갤러리 관련 문의 224-3608. /정해은 기자

영호남연극제 열린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전주, 순천, 구미, 서울, 진주 등 각 도시별 연극인들이 지역대표 공연을 릴레이로 펼치는 제17회 영호남연극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는 즐거움이다! 도시가 공연장이다!'라는 주제로, 23~28일 6일간 판소극장, 창작소극장, 아하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전주의 '극단 자부&문화영토 판'은 23일 오후 7시30분 판소극장에서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로 연극제의 서막을 연다. 이 공연은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새 잃어버린 혹은 잃고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옴니버스작이다.

이어 순천의 '극단드라마 스튜디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창작소극장에서 <Episodic-소풍>공연을 갖는다. 극은 중장년층 부부들의 단절된 소통을 이야기 한다. 극중 노부부는 소통의부채를 풀어보고자 소풍을 떠난다. 그들은 소풍을 통해 이야기는 놓친 일상의 작은 행복과 부부의 의미를 되짚는다.

구미의 '극단 공터다'는 마음 아픈 어른들의 이야기 <소나기 후>를 25일 오후 7시30분 아하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서울의 '인형극연구소 인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판소극장



에서 <커다란 순무>를 무대에 올린다. 이는 온가족이 힘을 합쳐 커다란 순무를 뽑아 나누어 먹는다는 내용의 러시아 민화 <커다란 순무>를 유쾌하고 상상력 풍부한 이미지인 형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또한 진주의 '극단 예도'는 27일 오후 4시 창작소극장에서 <어쩌다보니>를 공연, 관객과 함께 한다.

28일 연극제의 마지막 공연은 서울의 '극단 작은신화'가 오후 4시 아하아트홀에서 <눈뜨라 부르는 소리가 있어>로 장식한다. 작품은 세상의 틀에 끼어 이리저리 체이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 씩씩한 웃음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관조해본다.

공연문의는 277-7440. /정해은 기자

연극배우 56.1%,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연극분야 종사자들 절반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2일 발표한 '연극계 종사자 타분야 진출 현황 및 경력경로 조사' 연구에 따른 결과다.

예술인패스 연극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551명 중 309명(56.1%)이 이 같이 답했다.

50만~100만원이 30.9%(170명), 50만원 미만 25.2%(139명)이었다. 250만원 이상은 불과 9.4%에 그쳤다.

응답자의 39.7%(총 551명 중 219명)가 고 정적으로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27%(149명)는 비고정적 소속, 32.7%(180명)는 소속된 단체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은 10.7%(총 551명 중 59명)만이 정기적으로 얻고 있었다. 71.3%(393명)는 공연활동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3%(68명)는 활동경력을 위해 자발적(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극 분야 종사자들이 문화산업 등 타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극계 종사자들의 타 분야 종사경험은 75.1%(414명), 종사경력 수는 총 761건(1인당 약 1.84건 종사)이다.

연극계 활동분야 중 연극배우(80.9%)의 타 분야 진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위는 "종사분야를 보면 총 종사건수의 89.4%가 문화산업이나 기타 예술관련 분야로 연극분야는 다양한 분야 진출의 중요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극인들에게 경력발전 계기가 된 작품이 있었는지 묻자 74.6%(41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이상인 54.3%(223명)가 해당 작품이 '보조급 등 정부지원을 받은 작품'이었다고 응답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보조급 지원을 받는 작품활동을 통해 연극계 종사자 개인의 경력발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은 개인 경력발전 연계의 주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극계 종사자 개인의 경력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72.1%(551명 중 397명)가 "정부지원을 통한 연극활동이 개인의 경력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응답자 중 주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연극계 종사자들의 69.8% 역시 개인의 경력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선의 수혜여부를 떠나 연극분야 등 기초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연구는 연극계 종사자 활동분야별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직업군 분류 및 지원금 비수혜자 집단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결과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연극계 예술인들이 창작, 무대 등 작품활동에 집중하면,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영화, TV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연극계 종사자들이 타 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3일>

▷쥐띠
46년생: 소울렸던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이 따르니 기쁨이 가득한 운이다.
72년생: 본의 아니게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긴다.
84년생: 구설수로 근심이 있으나 후면에는 좋게 해결된다.

▷소띠
49년생: 나사야 할 상황과 물리서야 할 상황을 파악하라.
61년생: 무리한 일은 삼가고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어려오니 정신적인 소모가 큰 운이다.
85년생: 자신이 할 일을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62년생: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라.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상대방에 오해하여 구설이 따르는 운.
86년생: 아처피 나갈 금전이라면 미리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끼띠
51년생: 신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하라.
63년생: 놀랄 일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5년생: 식욕은 있으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87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고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용띠
52년생: 경거망동만 하지 않는다면 해가 없을 것이다.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쓸만한 일이 생기니 잘 해결될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7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과 화합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뱀띠
5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의견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것.
77년생: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89년생: 점심약속 보다는 저녁약속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유리하다.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
66년생: 금전운이 막혀 있으니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는다.
78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90년생: 자신에게는 의미없지만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양띠
55년생: 이랫사람에게 덕을 배풀어야 부담이 없다.
67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항구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
79년생: 뒷사람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1년생: 이성과의 의견이 충돌되는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자신의 것만 아깝게 생각한다면 고독해질 수 있다.
68년생: 문서를 잡거나 변통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발휘가 잘 되니 기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라.

▷닭띠
57년생: 동기간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9년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가족의 일에 세심한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매사 천천히 진행하라.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거리를 두고 공과사를 구별하라.
82년생: 평소애 익숙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돼지띠
47년생: 모임이나 화합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어긋나니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법이다.
71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운.